

# [문제제기] 생활·일상·세상(世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모토 미치야

번역: 김 현정

## 들어가는 말: 문제의 구조

이 글에서는 이틀 동안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무심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어쩌서 고민하고 어떻게 포착하며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에서 다룰 몇 가지 문제들을 부감하고 그 연구의 틀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일본사상사 연구의 태두 해리 하르투니언은 그의 저서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일본어 번역서는 2011년[こぶし書房], 한국어 번역서는 2006년[휴머니스트]에 각각 간행)에서 전쟁이 이어지던 기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일상성(Everydayness)에 관한 의문이 부상했던 의미를 천착하였다.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일어났던 1920년대~1940년대에는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국가와 일본에서 사회 편성을 교란시키고 변혁을 가져오는 일상성이라는 물음(개념 및 사상)이 절실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맞서려는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했다.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전개 속에서 소비문화가 무르익으려던 시대이자 다른 한쪽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대중은 스스로 일상성의 역사를 구축하고 표현하는 능동성=에이전시(agency)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한 시대이기도 하였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 하르투니언은 ‘일상이라는 신비’를 밝히고자 했던 발터 벤야민, 게오르크 짐멜, 보리스 알바토프, 마르틴 하이데거 등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일본에서도 곤 와지로의 고현학과 도사카 준의 『풍속과 사상』(三笠書房, 1936년)이 등장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의 『샬러리맨』(1930년)[크라카우어 1979]과 대비되듯이 아오노 스에키치의 『샬러리맨 공황시대』(先進社, 1930년)가 저술되어 화이트칼라 계급의 곤경이 민족지적으로 발표되었던 일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55]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모더니티가 전개되면서 나타난 한 단면이었음을 논하였다. 야나기타 구니오<sup>2</sup> 등에 의한 민속학이라는 학문도 같은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으며, 이는 연관된 사상사의 조류 속에서 파악되었다.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다양한 조류들의 공통점은 “잊혀진 질적 시간을 구해 내고 과학과 자본에 의해 손상된 직접적인 주체적 경험을 삶의 형태로 복원시키고자 한 노력”에 있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6]. 근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특징지운 것은 벤야민의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ベンヤミ

ン, 2015: 61]('역사의 개념에 대해', 1940년)이었다.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의 모더니티(근대<sup>3</sup>)를 일 본을 사례로 분석한 하르투니언이 벤야민의 이해를 넘어서 역설한 것은 균질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 의의 중심과 주변 사이의 불균등을 내포한 글로벌한 동시대적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거시적 구조론<sup>4</sup>이라기보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된 미시적 장면에서의 생활 경험과 담론, 그리고 불균등한 발전 속에서 자본주의가 체험한 경험[樹本, 2011: 276]에 대한 관심에 기초해 있었으며 하르투니언 은 이를 '일상성'이라고 이름붙였다.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양 국가 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 1. '생활': 대상으로서의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

### (1)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생활개선운동

이 심포지엄의 제 I부 '생활'에서는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이 논의의 대상이다. 1920~30년대 한중 일에서 거의 동시에 배태되고 전후 개별적으로 전개된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을 오키나와<sup>5</sup>· 타이완<sup>6</sup>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비교를 통해 그 동시대성과 이질성을 시야에 넣어 전후 일상사적 생활변화 를 상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운동들은 전후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도로 시작되어 농업개발보 급원이나 생활개발보급원<sup>7</sup>이 매개자가 되어 이뤄졌다.<sup>8</sup> 그러나 1934년 장개석이 제창한 신생활운동이 의식주의 개혁에서 강국화를 목적으로 삼게 되고 내지에서 선구적으로 생활상태조사<sup>9</sup>가 실시된 식민 지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교화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일보사 주도로 1929년에 생활개신운동<sup>10</sup>이 일어났 다. 비교대조사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운동들을 보다 조감적·다면적으로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변적 일상을 개혁하는 움직임은 한국의 경우 새마을 운동의 저류를 이루어 갔지만, 일본의 경우 에는 1941년의 『국민예법』이 사람들의 기거동작을 세세히 규제하였다.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지 만 병행되는 경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보잘 것 없는 신변의 세세한 '생활'에 초점을 맞춘 이 러한 운동은 사람들의 일상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적어도 그 대상이 된 일상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하다.

### (2) 다영역의 생활개선운동에의 주목

오늘날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에 대해서는 민속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축적 되어 있다. 우리 연구 그룹의 기초하는 다나카 센이치 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사업과 신생활운동』(農文協, 2011) 외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일본 근현대사 오카도 마사카쓰 편 『신 생활운동과 일본의 전후: 패전 이후 1970년대』(日本經濟評論社, 2012)를 비롯하여 중국 근대사에 대 해서도 후카마치 히데오의 『신체를 길들이는 정치: 중국 국민당의 신생활운동』(岩波書店, 2013)이 간 행되었다. 이 연구 성과는 단서총의 『장개석과 신생활운동』(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 이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1</sup>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은 전후 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운동을 말한다. 다만, 1934년의 장개석에 의한 신생활운동을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이 주창한 신생활운동이라고 같 은 명칭만을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 유감스럽다. 중국, 한국, 일제강점기의 조선·타이완에 서의 생활개선운동과 전후 오키나와의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동아시아 근대에 공통된 모더니제이션의 일련의 동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심포지엄의 특색은 각 운동을 개별적으로 다루 지 않고 동아시아의 근현대 속에서 상대화시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이란 총

리부 계통의 신생활운동과, GHQ의 농촌개혁의 일환으로 농촌 민주화를 위해 1948년에 시작된 농림성 계통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의 두 가지를 말한다(다만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쟁 중에 이루어진 문부성의 생활개선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유사한 사업을 전개한 내무성의 민력함양운동, 1932년 이후의 농상무성의 농산어촌 경제개생운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보통 문부성의 외곽단체로 1920년에 설립된 생활개선동맹회가 그 기점으로 인식된다. 복장, 식사, 주택에서 사교의례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관한 개선과 합리화를 의도한 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도시 중류층(신중간층)의 주거 생활의 개선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전술한 두 권의 책에서 다루어진 전후 농촌의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산업조합중앙회 등과 같은 관제 단체도 유사한 사업을 전개했다. 또 부현과 시정촌이 직접적으로 개선사업에 관여했고 생활개선을 위한 반관반민의 단체를 조직하는 일도 많았다. 경제학자 모리모토 고키치가 1922년에 설립한 문화보급회처럼 생활개선운동을 민간에서 행하는 사례도 많았다[久井, online]. 또 생활개선동맹회 이전에 있었던 근검역행, 허례폐지 등을 주창한 보덕사 운동, 정촌시조사운동·지방개량운동을 같은 경향의 운동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실 생활개선운동의 ‘외연’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life, leben과 같은 서구어의 번역어로서 근대 일본어로 등장한 ‘생활’이라는 말<sup>2)</sup>의 본질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겠다.

### (3) ‘생활’에 대한 주목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변혁

기본적 의미에서의 ‘생활’이란 생존해서 활동하는 것, 살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리킨다. 인간 생존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도 그 ‘삶’의 질에 관심을 갖은 후에야 쓰이게 된 개념이 ‘생활’이었다[森本, 1921: 4; 中寫, 1975]. 비슷한 근세어로는 「도세(渡世)」, 「생업(生業)」, 「활계(活計)」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계의 식량, 수단,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생애를 ‘선(線)’으로 이해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무성이 주도한 민력함양운동<sup>13)</sup>은 5대 요강 중 하나로 ‘근검을 역행하고 미풍을 작흥하며 생산 자금을 늘려서 생활 안정을 꾀할 것’(방점은 필자)을 들었다. 지방개량운동에서도 강조된 유교 덕목인 ‘근검 역행’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전의 관념론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의 삶을 직시하고 개량 가능한 객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대전 이후의 본격적인 공업화와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생활난’이 문제가 된 대도시에 사는 신중간층, 이른바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의 등장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출현시켰다[岩本, 2011]. 가계조사나 국제조사 등 ‘생활’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그와는 대조적으로 ‘생활’을 통째로 파악하려는 학문, 즉 민속학이 여러 나라에서 탄생했다[バウジンガー, 2005: 95]. 야나기타의 3부 분류가 ‘생활 외형·생활 해설·생활 심의’이며 『명치대정사세상편』(이하, 『세상편』)의 마지막 장이 ‘생활 개선의 목표’라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 심포지엄은 학문의 초창기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던 민속학의 의의를 중시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 위와 같은 움직임에서 중요한 점은 민중 스스로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적 실천을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총독부의 교화 정책에 대항한 조선일보사 주도의 생활개신운동이나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도 운동 등이 그 전형인데, 위로부터의 시책만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의 지방개량운동은 풍속을 개량하고자 했고 허례와 음력의 폐지, 위생관념의 보급 등을 주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다음 시대로 넘겨졌다. 즉 ‘보통 사람들,’ 즉 주민들에 의한 창의력과 양식을 갖춘 주체적인 생활실천운동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대를 앞선 소비지향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비로소 변혁이

실현되는 것이다. 농림성의 농업개량보급원, 생활개량보급원은 어디까지나 매개자에 지나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을 ‘참가형 개발’의 모범적 모델로 보는 개발 경제학이나 개발 인류학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에 응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내발적 실천이다.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한중일 발전에 기초를 마련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버 내쿨러한 실천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어쩌서 일상습관의 개선이었는가?

GHQ는 전쟁 직후 재결성된 청년회, 부인회에서 국방부인회의 어용단체적 성격을 제거하고 지도 자에게 맹종하지 않는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농민’의 육성을 중시했다. 전기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전기밥솥, 냉장고 등의 보급을 가전 기업의 발명과 마케팅의 측면에서 논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연구는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고도경제성장 뒤에 묻혀버리기 쉬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실천을 적어도 우리 민속학자들은 생활자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있다.

하지만 상술한 운동을 짚어졌던 세대는 현재 고령화했고 지금이 당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과 제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스스로를 농촌 민주화의 주인공이라 여기고 적극 적으로 신변의 생활을 개선한 것은 1950년대 전후부터 1960년대 전반에 한정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광복 이전의 운동을 계승한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급감하고 있고, 국 민당의 타이완 이전 후에도 인민공사가 생활 개혁을 담당했던 중국에서도 1978년에 생산책임제를 도 입한 후 1983년 사이에 인민공사는 해체되었다. 그 이후의 슬로건이 없는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 떻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해왔는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sup>14</sup> 이 심포지엄에서는 ‘지금 여기’에도 영향 을 끼치고 있는 문제, 즉 후카마치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했을 때에 어쩌서 행동거지 등의 일상 습관의 개선이라는 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대중들이 동원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는지[深町, 2013: 7~8]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간이수도의 설치, 파리, 모기, 쥐와 같은 가정 해충의 구제, 개량 부뚜막을 비롯한 부엌 개량 및 요리강습회, 육식, 변소, 배수의 개량이라는 보건위생사업, 시간업수, 기거동작의 개량, 관혼상제의 간 략화, 인습 타파, 출산조정, 피임방법의 지도강습회 등 활동내용은 다양하다. 농림성의 생활개량보급 원과 농업개량보급원, 후생성의 보건부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성도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 다. 이들이 어떤 과정 및 메커니즘을 통해 각 지역과 가정에 도입·소비되었는지, 한중일의 비교 대 조를 통해 무엇이 유사하고 다르기에 유의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 경험을 두텁고 깊이 있게 기술 해 나가야겠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일본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 중국의 화장실 혁명들과 는 시기나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평범한 행동거지와 같은 당연한 일상적 ‘생활’이라는 영역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동시대적 예폭이었다.

## 2. 개념으로서의 ‘일상’: 각각의 수용과 전개

이들째 오전 중의 제Ⅱ부에서는 ‘일상’ 개념의 한중일 각국에서의 수용과 전개, 발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일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진행되 었다. 왜냐면 하르투니언이 일대 파노라마와 같은 연구를 실천한 것처럼 일상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 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어 그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독일 민속학의 ‘일

상' 개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李, 2015].

1970년 팔켄슈타인 원칙 이후 1980년대 말에 걸쳐 '일상'(alltag)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전개되었고, 캐롤 립[Lipp, 1993]이 논한 바와 같이 사회학, 역사학의 경계에서 일상문화연구가 늘어났다. '노동자 문화'(Arbeiterkultur)라는 일본에서는 생소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일상' 개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렇듯 각국의 실정이 일상 연구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한국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살림살이 연구와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岩本, 2015; 金, 2016]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의 연구를 소개해 보겠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특별전을 보면 이전 심포지엄의 테마이기도 했던 적층형 집합주택을 다룬 '아파트 인생'을 비롯하여 '서울의 푸줏간', '응답하라 1994, 그 후 20년',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 '세상을 찍어내는 인현동 인쇄골목', '아파트 숲이 된 북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은 대담한 기획이 줄줄이 개최되었다. 일상 혹은 일상사적 기획전시가 매년 거의 정기적으로 다수 열리고 있으며 한글판 홈페이지에서는 각 전시의 카달로그(e-book)를 무료로 입수할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고시생과 그들의 하숙집에서의 일상을 그린 신림동 청춘이라는 민족지는 매우 뛰어나다.

그럼 민속학에서 '일상'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독일 민속학의 게르트가 쓴 입문서를 통해 살펴보겠다. "민속학은 폭넓은 주민 집단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시선은 과거 및 현재의 문화 표출에 맞춰진다. 민속학이 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어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이다. 즉 우리들과 생활 공간·경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현재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Gerndt, 1997: 25].

단순히 일상생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해지는 과정(일상화)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알브레히트 레만의 '일상 이야기'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sup>15</sup>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이라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일상뿐만 아니라 (일상에 매몰된) 당연한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방법으로서의 일상이라는 물음도 내포된다. 독일의 일상도 각국의 민속학에서 수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그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3. 방법으로서의 '세상': 변화하는 일상을 어떻게 파악·기록할 것인가?

이들째 오후 제Ⅲ부는 '세상'이라고 명명하고 그 방법으로서 변화하는 일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위에서 인용한 게르트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해지는 과정이라는 변화를 포함한 접근법이 핵심이 된다. 문제는 '지금 여기'를 아무리 민족지적으로 기술하더라도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 저기'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한편, '세상'이란 야나기타의 세상편의 '세상'이다. 『元祿世相志』(齊藤隆三, 1905, 博文館)에서 만들어진 조어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한자어가 통하지 않는다. 한자어권에서 통용되는 비슷한 말로 '세태'가 있다. '세상'은 시대정신, 사회상황, 풍속에 공통되는 시대적 특징이나 전체적인 '相'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岩本, 2002]. 야나기타도 세상편을 "세상의 변화, 즉 풍속에 관한 책으로 쓴 것"[柳田, 1954: 3]이라고 말했는데, 항상 변하는 일상의 추이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라는 즉시적이고 지나가는 일상과 "눈앞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柳田, 1993: 19]이라는 세상사적 일상을 어떻게 하면 연관지을 수 있을까? 전자의 일상 연구를

시간이 불특정하고 현주소·소재지가 불분명한 내용의 민족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 측 등단자를 제외하면 일상의 변화나 세상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논의되는 ‘생활세계’나 ‘생세계,’ ‘공간적 실천’이라는 표현은 개인에게만 닫혀져 있는 세계가 아니다. 외부와의 연결 없이는 생활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고찰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연결된 인간관계나 사회까지도 비추어준다. ‘생활세계’란 판단 이전의 개인의 지각적·직관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주관이 타자와 함께 살아 있는 상호주관적이며 간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침전된, 매일 매일의 일상 실천이 누적된 역사적인 세계이기도 하다.

## 나오는 말

이번 논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족적을 남기는 것이 하르투니언이 강조한 ‘일상성’(Everydayness) 그 자체이며 우리들의 미래를 다시 쓰는 체험된 경험 입에 틀림없다.

하르투니언은 “도시의 일상성이 생산한 다양한 기호는 체험된 현재의 개별적 경험과 역사적 차이의 특징으로서 하나의 ‘잔상,’ 과거에 구현화(actualize)되었던 흔적—그 속에서는 현재가 새로이 다르게 배치되며 구현화된다—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 ‘잔상’이란 “과거에 구현화되었던 흔적”이다. 그리고 이를 현 시점에서 다르게 배치하여 구현화하는 것이 문화<sup>16</sup>를 버내쿨러(vernacular)한 형태로 재배치해가는 생활 실천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일상성이 의미한 것은 현재의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과거를 ‘지금’이 구현화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재성’(既在性)이 아니라, ‘잊혀졌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5].<sup>17</sup> 다시 말해, “현재의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과거를 ‘지금’이 구현화시키는 방식”이란 항상 과거, 즉 문화를 참조 기준으로 삼으면서 현재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실천이나 액추얼리티를 말한다. 과거를 망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상성의 ‘지금 여기’가 기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注

- 1 영문 원본은 똑같이 2000년에 간행된 『근대의 초극: 전간기 일본의 역사·문화·공동체』[ハルトゥーニアン, 2007]이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쓰여졌다. 사상으로서의 일상성이 갖는 세계사적 동시대성을 거시적으로 주제화한 『역사의 요동』과는 한 쌍을 이루는 연구서이다.
- 2 야나기타에 관해서는 『역사의 요동』보다 「국민 이야기, 망령의 출현: 근대 일본의 국민적 주체의 형성」[ハルトゥーニアン, 2010]이 보다 상세하며 야나기타와 민속학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도시와 농촌』, 『명치대정사세상편』을 높이 평가했지만, 주4와 같은 의미에서 민속학 자체는 오리구치 시노부에 대해 기술한 맥락 속에서 ‘망령의 출현’으로 평가되었다.
- 3 하르투니언과 역자는 모더니티를 ‘근대’와 구별해 사용했다. ‘근대의 초극’을 주제로 논한 『근대에 의한 초극』에서는 “근대라는 용어가 예술, 문화, 정치 체제의 고유성을 은폐”한다고 지적하였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07: 4].
- 4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분단과 단편화된 생활 속에서 “일체화를 재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짓 약속을 하는 담론도 생겨나고 있다. ‘영원성’이라는 이념에 대한 충동은 공업화가 진행되던 1920년대와 30년대에 나치즘과 같은 영속적 민족 공동체에 대한 확신, 혹은 역사를 초월한 이념이나 가치의 능력을 신봉하는 관념론 철학에 나타나는 ‘숭고한 자기 기만’(막스 호르크하이머)으로 구체화되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 2011: 7].
- 5 전후 미군 USCER 지배 하 오키나와에서 이루어진 생활개선보급사업은 가가야에 따르면 대학을 보급사업의 거점으로 하는 등 미국형 Home Living Improvement Research and Extension Program의 영향이 컸다 [加賀谷, 2017]. 일본 본토의 경우 전전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생활합리화운동을 모델로 한 생활개선운동[藤原, 2016; 中野, 2008; 久井, online]이 기반이 되어 전후 농림성의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총무성의 신생활운동으로 이어져 전개되었다.
  - 6 일본 식민지 시대의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생활개선운동에 대해서는 [山路, 2004]를 참고할 것.
  - 7 GHQ의 지도 아래 농가 생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1948년 농업개발조장법(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고 농림성에 의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 8 이러한 모델은 최근 개발인류학적으로 응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자의 개발 현장에서 '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太田, 2004].
  - 9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의 지역편은 1929년 수원군 이후로 7권이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계량적 지역 분석이 그 내용을 이룬다. 타이완에서도 본토의 국제조사에 앞서 1904년에 '임시 타이완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 10 일제시대 운동은 1932년 이후 조선총독부 우가키 가즈시게에 의해 추진된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29년에 조선일보사가 시행한 '생활개신운동'과 1931년에 시작된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계몽적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중운동도 중요하다. 전자에서는 건강증진·소비절약·허례철폐·일찍 일어나기·색의단발·상식보급의 여섯 항목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글자보급운동으로 변화했다. 후자도 글자와 숫자에 대한 계몽이 중심이었지만 둘 다 총독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松本, 1996; 宮本, 1998]. 또 이 시기의 1934년에 총독부 중추원이 가정의 유교식 관혼상제를 정리하여 규정한 '의례준칙'이 1973년에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으로 계승[丁, 2014]되어 오늘날 한국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 11 사회 디자인학 분야에서는 전업주부에 의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小関, 2015]. 사회교육학 분야에서는 선행연구인 [久井, 2008]이 대상의 외연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또 건축학 분야에서는 다이쇼 후기의 생활개선운동이 도시 신중산층의 생활의 '모범'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곧 와지로에 관한 연구도 있다[黒石, 2015].
  - 12 생활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생활 개선에 관한 선구적 연구인 [中郷, 1974] 이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오제키 다카코(小関孝子)에 의하면, 생활합리화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1930년 이후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면 소비나 오락까지도 장려했던 생활개선운동은 관동대진재 이후 생활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논조로 변해갔다[小関, 2015: 89, 64].
  - 13 민력합양운동은 1919년 3월에 도쿄나미 다케지로 내상이 각 부현지사에게 내린 훈령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5대 요강을 기축으로 한 전후 경영사업의 총칭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즐고[岩本, 2008]를 참고할 것.
  - 14 중국 인민공사로의 연속성과 이후의 슬로건 부재의 생활개발 실천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무라 가즈히코 씨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 15 레만에 대해서는 [レーマン, 2010; 岩本・法橋・及川編, 2011] 등을 참고할 것.
  - 16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체험된 경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물의 세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
  - 17 이어서 하르투니언은 "일상성이란 불온한 형식이며 공중에 매달린 순간이다. 이는 새로운 현재이며 전통을 폭력적으로 중단시키고 과거가 그리는 흐름이나 운동을 공중에 매다는 '역사적 상황'이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5]라고 말했다.

## 참고문헌

- 李相賢, 『ドイツ民俗学と日常研究—ドイツチュービンゲン大学民俗学研究所の村についての日常研究を中心に』, 『日常と文化』 1号, 中村和代・訳, 2015.
- 岩本通弥, 『世相』, 小松和彦・関一敏編, 『新しい民俗学—野の学問のためのレッスン』 26, せりか書房, 2002.
- \_\_\_\_\_, 『可視化される習俗—民力涵養運動期における『国民儀礼』の創出』,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41号, 2008.
- \_\_\_\_\_, 『家族をめぐる二つの生活改善運動—民力涵養運動と新生活運動』, 田中宣一編, 『戦後農村の生活改善事業と新生活運動』, 農文協, 2011.
- 岩本通弥・法橋量・及川祥平編, 『オーラルヒストリーと<語り>のアーカイブ化に向けて』, 成城大学グローバル研究センター, 2011.
- \_\_\_\_\_, 『“当たり前”と“生活疑問”と“日常”』, 『日常と文化』 1号, 2015.
- 太田美帆, 『生活改良普及員に学ぶファシリテーターのあり方—戦後日本の経験からの教訓』,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4.

- 小関孝子, 『生活合理化と家庭の近代—全国友の会による「カイゼン」と『婦人之友』』, 勁草書房, 2015.
- 加賀谷真梨, 『沖縄における生活改善普及事業の展開と受容』, 生活変化/改善研究会, 2017年4月15日発表, 2017.
- 金賢貞, 『韓国民俗学は『当たり前』を捉えうるか—韓国国立民俗博物館の2つの民族誌(2007~14年)を中心に』, 『日常と文化』2号, 2016.
- 樹本健, 『訳者あとがき』, ハリー・ハルトウーニアン, 『歴史の不穏』, こぶし書房(樹本健・訳), 2011.
- ジークフリート・クラカウアー, 『サラリーマン—ワイマル共和国の黄昏』, 法政大学出版局(神崎巖・訳), 1979.
- 黒石いずみ, 『東北震災復興と今和次郎:ものづくり・くらしづくりの知恵』, 平凡社, 2015.
- 丁世絃, 『近代期の韓国における儒教儀礼の変化』,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7号, 2014.
- 中野邦, 『大正期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 『史艸』15号, 1974.
- \_\_\_\_\_, 『大正期の生活論』, 和歌森太郎先生還暦記念論文編集委員会編, 『明治国家の展開と民衆生活』, 弘文堂, 1975.
- ヘルマン・パウジンガー, 『科学技術世界のなかの民俗文化』, 文楯堂(河野眞・訳), 2005.
- ハリー・ハルトウーニアン, 『近代における超克—戦間期日本の歴史・文化・共同体』上・下, 岩波書店(梅森直之・訳), 2007.
- \_\_\_\_\_, 『国民の物語、亡霊の出現—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的主体の形成』, キャロル・グラクホカ, 『日本の歴史25日本は何処へ行くのか』, 講談社学術文庫(樹本健・訳), 2010.
- \_\_\_\_\_, 『歴史の不穏—近代、文化的実践、日常生活という問題』, こぶし書房(樹本健・訳), 2011.
- 久井英輔, 『大正後期・昭和初期の生活改善運動における<都市>と<農村>』,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部紀要』44巻, 2004.
- \_\_\_\_\_, 『戦前生活改善運動史研究に関する再検討と展望—運動を支えた組織・団体をめぐる論点を中心に』, 『兵庫教育大学研究紀要』32巻, 2008.
- \_\_\_\_\_, 『大正期の生活改善における<中流>観の動向とその背景』,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61号, 2012.
- 久井英輔 online 『大正・昭和初期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の概観』, 『生涯学習研究 e 事典』, 最終アクセス日: 2017年4月20日:  
<http://ejiten.javea.or.jp/content.php?c=TWpRk5qTXo%3D>
- 深町英夫, 『身体を驍ける政治—中国国民党の新生活運動』, 岩波書店, 2013.
-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著・鹿島徹二訳・評注, 『[新訳・評注]歴史の概念について』, 未来社, 2015年.
- 松本武祝,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植民地権力による農民の組織化過程』, 『商経論叢』32巻3号, 神奈川大学, 1996.
- 宮本正明,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問題の位相』, 『史観』139号, 早稲田大学, 1998.
- 森本厚吉, 『呪ふべき二つの生活』, 『文化生活』1巻3号, 1921.
- 柳田國男, 『総説』柳田國男編『明治文化史—風俗』, 洋々社, 1954.
- \_\_\_\_\_, 『明治大正史世相篇』, 講談社学術文庫, 1993(初出:1931, 朝日新聞社).
- 山路勝彦, 『『文明化』への使命と『内地化』』, 『台湾の植民地統治』, 学術出版会, 2004.
- アルブレヒト・レーマン, 『意識分析—民俗学の方法』, 『日本民俗学』263号(及川祥平・訳), 2010.
- Helge Gerndt, *Studienskript Volkskunde*, Waxmann, 1997(ヘルゲ・ゲルント, 『民俗学研究法』, 1997).
- Carola Lipp, Alltagskulturfor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 Aufstieg und Niedergang eines interdisziplinären Forschungskonzepts.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9.Jg., 1993(カローラ・リップ, 『民俗学、社会学、歴史の境界領域としての日常文化研究—学際的な概念の上昇と下降』, 『民俗学雑誌』89巻, 1993).